

## 함안 龍華山下 船遊의 인물과 장소성 연구

하 강 진\*

### 차 례

1. 들어가며
2. 龍華山下同泛錄의 성격과 보완
  - 1) 선유의 목적과 실행 과정
  - 2) 선유 기억의 전승과 인물
  - 3) 용화동범의 감흥과 시 창작
3. 습江亭 권역 선유 공간의 장소성
  - 1) 蓬山浴行錄과 경유지로서의 용화산
  - 2) 조임도에 의해 구체화된 선유 장소
  - 3) 용화동범과 용화산수도의 거리
4. 나오며

### 국문초록

17세기 초 한강 정구(鄭述)가 주도한 함안 용화산하(龍華山下) 선유(船遊) 기록은 낙동강 연안의 문화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다. 지역문화콘텐츠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관련 인물과 선유 공간의 장소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화산 아래 낙동강 동범은 짧은 일정상 한강의 문인들이 학술 토론을 펼치는 모임은 될 수 없었다. 당시 선유(船遊)는 비석 찾기를 명분으로 사우들 간에 안부를 묻고 동료 연대감을 공고히 하는 차원의 사제 동행이었다.

둘째, 간송 조임도(趙任道)가 용화산하동범록(약칭 용화동범)에서 35

\*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명을 기재하고 그중 2인의 정보는 모른다고 했다. 박상절이 1742년 입수한 이충민(李忠民)의 인적 사항을 1758년 『기락편방』에 보충하면서도 최문주(崔門柱)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두었다. 관련 문헌을 새롭게 고찰한 결과 그는 1589년 합천에서 태어나 영산으로 이사해 살다가 1654년에 졸했고, 선유 당시 흥미롭게도 35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9세로 한강의 촉망받는 제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용화동법의 감동과 의미를 전해주는 작품 두 편을 문집에서 찾았다. 옥천 노극홍(盧克弘)의 시는 사우들과 함께한 선유 당일의 감격을 표현했고, 광서 박진영(朴震英)의 시는 혼탁한 세상에서 지조를 지켜나가고자 한 지사적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이다.

넷째, 한강의 봉산욕행(蓬山浴行)에는 용화산 주유 때 동참한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뱃길 위주의 하행 길에서 일시 머문 함안의 주요 장소가 일정 관계상 풍부하게 묘사되지는 못했으나 낙동강 선유 문화의 풍류와 임란 체험의 문화적 기억을 축적했다. 그리고 퇴계(退溪) 선유시의 미적 감성을 계승하는 흥락(興樂) 정서가 주조를 이룬 기존의 시 외에 관련 시 한 편을 더 찾아 선유 관련 작품 총량을 늘렸다.

다섯째, 조임도는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극진한 효심을 실천하기 위해 함안 검암(儉巖)에서 칠원의 내내(柰內)로, 또 내내에서 영산현의 용산(龍山)으로 이사했다. 이로써 함안권 선유 공간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들어왔게 되었고, 기망(既望)의 월주(月柱)가 장관인 합강정의 공간 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여섯째, 박진영의 증손 박상절(朴尙節)이 『기락편방(沂洛編芳)』을 편찬하면서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과 용화산수도 구성을 신설함으로써 용화동법의 기억이 대거 보강되고 선유 의미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다만 장소성의 변화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판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제어: 함안(咸安),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 선유(船遊), 합강정(合江亭), 조임도(趙任道), 『기락편방(沂洛編芳)』, 「용화산수도(龍華山水圖)」

## 1. 들어가며

낙동강(洛東江)은 예나 지금이나 인적 교류나 물류가 이동하는 대동맥이다. 강을 따라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최근 강안학(江岸學)이라는 큰 범주를 설정해 물이 갖는 문화적 속성과 낙동강을 기반으로 생성된 문학의 특징을 활발히 고찰하고 있다.<sup>1)</sup>

낙동강은 상주권, 대구권, 부산권 세 영역으로 구분해 문화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선유(船遊)는 전통 시대 교통 방식의 하나인 동시에 창조적 문화 활동의 배경이 된다. 낙동강 하류를 범칭하는 부산권 유역은 대구에서 흘러내려 밀양강을 거쳐 삼랑진에서 합수해 양산을 통과해 부산 해안으로 흘러드는 동부 지역의 낙동강, 달성에서 창녕으로 흘러 함안(咸安)에서 남강과 합수해 중부의 수산을 거쳐 삼랑진으로 흘러가는 서부 지역의 낙동강으로 나눌 수 있다.

합강정(合江亭) 권역의 중심에 용화산(龍華山)이 있는데, 함안 대산면 장암리에서 칠서면 계내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이다. 남강이 용화산 서쪽 끝에서 낙동강과 합류해 기암절벽을 감싸며 동으로 흐른다. 이러한 지형 조건으로 일찍이 선유 문화가 발생했는데 1607년 한강학과의 선유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학적 관심은 선유시를 비롯한 낙동강문화, 선유를 주도한 한강학과의 성격, 선유도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

1) 경북대 국문과 BK사업단과 동대학 퇴계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성과를 학계에 보고하고 있고, 정『낙동강과 문화어문학』(정우락 외, 역락, 2022)·『강안학이란 무엇인가』(정우락 외, 역락, 2024)·『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과』(장윤수 외, 역락, 2025) 편저가 나왔다.

왔다.2) 아울러 현재 함안군에서 국비를 확보해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선유 공간에 있는 합강정, 반구성, 도흥저수지 일원이다. 조선시대의 선유 풍류가 현대의 관광 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함안 용화산 아래의 선유는 낙동강 역사와 풍류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전통 문화콘텐츠이다. 콘텐츠 자체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초반 용화산하동범의 성격은 무엇인가, 유람 시기를 왜 1607년 1월로 잡았는가. 둘째, 용화산하동범록에 등재된 인물 중 최문주는 400여년이 지난 뒤에도 기존처럼 공백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가. 셋째, 동범록이 인명록 성격이기는 하지만 선유 당시에 창작한 시는 없는가. 넷째, 한강학과의 봉산욕행록 중 함안권 선유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것을 보완할 점은 없는가. 다섯째, 함안권 선유 공간의 장소성은 조임도의 주거지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해당 작품은 무엇인가. 여섯째, 용화산 선유 코스와 판화로 재현된 후대의 용화산수도는 장소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龍華山同泛錄의 성격과 보완

### 1) 선유의 목적과 실행 과정

용화산하동범(龍華山下同泛, 이하 약칭 용화동범)은 한강 정구(鄭誦)

---

2) 연구사의 개략은 김종구의 「16~17세기 선비들의 洛東江文化와 그 의미-정구, 장현광, 정경세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8집, 2022 참조. 그리고 선유도와 관련해서는 이연주, 「영남 문인들의 결속과 낙동강 선유의 근대적 재현」, 『한국민화』 21호, 한국민화학회, 2024 ; 유주연, 「조선 후기 선유문화의 시각화-낙동강 유역 선유도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21호, 2025 참조.

일행이 1607년 1월 27일(양력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함안 용화산 아래서 거행된 뱃놀이를 말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십 년이 되던 해였다. 한강은 1586년 10월부터 1588년 8월까지 함안군수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고 여러 제자에게 학문을 전수했다. 얼핏 단순한 기획으로 보이거나 실제 3~4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유람이었다.

더구나 듣건대 새집이 이미 최고운(崔孤雲)의 유적 곁에 지어졌다 하니, 이는 옛날 서산 선생이 정사를 지은 뜻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못난 나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로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운 한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또한 큼니다. 그 정사에 올라 구경을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과 정신이 훨훨 날아 어느새 이 몸이 이미 두척산(斗尺山) 기슭에 가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산천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당장 말을 타고 찾아가고 싶으나 병든 몸이 또 세상일에 얽매여 쉽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배를 구해 돛을 높이 달고 청송사(靑松寺)와 경양대(鏡釀臺) 사이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형에게 내가 왔노라고 알리겠습니다. 시기의 빠르고 더딘 것은 지금 감히 미리 기약할 수 없습니다.<sup>3)</sup>

윗글은 나이는 동갑이지만 한강급문록의 맨 앞자리에 있는 성경침(成景琛)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밑줄 부분의 ‘새집’은 창원 마산 월영대 인근의 두척산(斗尺山, 현 무학산) 서당골에 건립한 관해정(觀海亭)을 말한다. 한강이 1587년 함안군수로 있을 때 노년에 서로 어울려 지낼 요량으로 이곳에 정사를 짓고 싶은 마음을 제자들과 노닐면서 시로 표현한 적이 있다.<sup>4)</sup> 한강은 제자 장익규(張益奎, 1571~?)가 1604년 성경침 등의 함안 선비들과 힘을 합쳐 초옥 한 채를 완공했다는 소식을

3) 정구, 「答成仲珍景琛」, 『한강집』 권3, “況聞新舍已成於孤雲舊跡之旁, 此西山先生營葺之遺意也. 尤非拙謬之所堪, 欣幸固深, 而慚惕亦甚矣. 不待登覽, 而心神飛越, 不覺此身已在斗尺之麓, 而目極浩渺之無涯也. 卽欲御疑征邁, 而疾病之身, 復被塵冗拘掣, 須待少間, 覓船張帆, 到得靑松鏡釀之間, 使人以告也. 遲速則今不敢預期焉耳”

4) 정구, 「始卜海亭示同來諸君子」, 『한강집』 권1 ; 「書舊時海亭詩後」, 『한강집』 권9.

들은 뒤에 기약할 수 없지만 건강을 회복한 뒤 적절한 시기를 택해 직접 가서 구경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강은 27일 질서  
이자 제자인 여헌 장  
현광(張顯光)을 위시  
한 문도들과 함께 도  
흥보(道興步)에 먼저  
이르렀다. 비석을 찾  
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이 있었고 동시



자료1.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망우정에서 본 평사(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강나루)

에 선유를 넉넉하게 즐겼다. 그리고 낙동강을 따라 창암(蒼巖)에 도착해 곽재우(郭再祐)의 망우정(忘憂亭, 자료1)에서 묵었다. 그날 조임도(趙任道)의 부친 입암 조식(趙埴, 1549~1607)은 함안 검암리에서 동생 두암 조방(趙邲, 1557~1638)의 상포 별장인 반구정(伴鷗亭)으로 미리 와서 머물렀고, 장춘사(長春寺)에서 독서하고 있던 아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대학자 한려(寒旅)와 지역 선배들에게 인사를 시켜 장차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에 조임도는 저녁에 도착했고, 아래의 작품은 그날 저녁에 숙부에게 드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昨日長春寺	어제 낮엔 장춘사
今宵景釀臺	오늘 밤엔 경양대
江山隨處好	강산이 곳곳마다 좋으니
風月豈相猜	풍월이 어찌 서로 시기하라
款曲論情話	곡진히 정을 나누는 대화
慇懃破恨杯	은근히 한을 없애는 술잔
人間此眞樂	세상에서 이것이 참된 즐거움이요
餘外總堪哈 <sup>5)</sup>	이밖엔 모두는 가소로운 것이라네

5) 조임도, 「上浦江墅伏呈季父」, 『간송집』 권1.

숙부의 상포 별장에서 나누는 형제간, 숙질간, 부자간의 진솔한 대화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 노래하고 있다.

간송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부친과 계부를 작은 배에 모시고 도흥으로 갔다. 당시 한강 일행은 이미 경양대(景釀臺)를 지나고 내내(奈內)에 올라 산천의 경치를



자료2. 대신면 용화산 오른쪽의 도흥보(현 부목리 부촌마을). 왼쪽 끝은 능가사.

구경한 뒤 용화산 아래에 배를 매어두고 선유 행차의 계기가 된 수석(搜石) 작업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다. 간송은 나아가 스승에게 배알했다. 한강은 어부를 동원해 도흥보(자료2) 강가의 모래밭을 파헤치고 물속을 뒤졌으나 묘연한 비석의 행방은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한강은 선유 취지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저녁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연명록 작성이 끝나자마자 한려(寒旅) 두 사람은 이내 가마를 타고 침소로 가고, 객재우는 창암정으로, 함안군수 박충후(朴忠後)는 관아로 각각 돌아갔다. 나머지 선상의 사람들도 흩어지고 도흥나루에 유숙한 사람은 문생 10여 명과 함안 노인의 자제들이었다. 체류 사흘째인 29일에 두 선생은 강 건너 북쪽 고향으로 떠났다. 간송 자신도 부친을 모시고 조부 조정언(趙庭彦) 때부터 원북(院北)을 떠나 살기 시작한 검계(劍溪)<sup>6)</sup>로 돌아갔다. 참고로 조정언은 정무공 이호성(李好誠)의 손자 이희조(李希祖)의 사위이니 조임도에게 검계는 진외가(陳外家)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조임도의 종중조부 무진

6) 검계(劍溪)는 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儉巖里) 하검동마을이다. 서쪽으로 무진정이 있는 함안면 괴산리, 그리고 북쪽으로 조임도를 배향하던 송정서원의 유허비가 있는 산인면 송정리와 각각 접해 있다.

정 조삼(趙參)의 장인이 이호성의 3남 이거인(李居仁)이고, 이희조의 중부(仲父)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때의 선유 성격에 대해 학문적 동지들이 모여 대규모 학술강론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선유를 함께한 하루 동안 사제 혹은 친구들 사이에 질의와 답변이나 답소를 주고받은 정황은 예상대로 있으나<sup>8)</sup> 현재 전하는 관련 글에서는 학술 담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유의 주된 목적이 20년 전 함안군수 때 읍길 수 없어 강가에 두었던 석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었고, 그 정도면 수색은 하루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절경의 경양대(景釀臺)도 스쳐 지나갈 만큼 도흥촌으로 신속히 이동했고, 다음날 청명한 새벽에 서둘러 강을 건너 귀가를 단행함으로써 애초 선유의 한 계기로 삼은 창원의 관해정(觀海亭) 탐방도 이후의 어느 날로 미루었다. 아마도 한강이 선유하기 2주 전인 1월 13일 안동부사에 이미 제수된 상태였고, 조만간 상경해 사직 상소를 올린 뒤에 환향하겠다고 결심한 복잡한 심경과 관계가 있으리라 본다.<sup>9)</sup> 실제 2월 초순 서울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사직소를 올린 것을 보면 함안에서 지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이해된다.

그렇다면 선유 시기를 굳이 강바람이 매서운 맹동(孟冬)의 하순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무렵 비석이 필요했고, 용화산에 묻어둔 원석을 찾으려면 강가 표면이 많이 드러나는 한 겨울철이 더욱 적합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

7) 선유의 성격과 한강을 포함한 35명의 학맥에 대해서는 허권수, 「용화산하동범, 강안 선비들의 강회」(함안문화원, 『용화산하동범 제현 행적 재조명 학술대회 자료집』), 2024.12.13 참조.

8) 「광서박선생년보」, 『광서집』<8a>, “諸賢及公, 泛舟龍華山下, 沿洄下上, 隨處講討. 『澗松集』, 公與一時諸名勝列坐, 不佞亦預末席. 竊觀其談論酬酢, 儼然可象, 座中莫不起敬焉”

9) 김학수, 「정구(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호, 2010 참조.

았으나 수색 성공은 실은 처음부터 장담할 수 없었다. 설령 수석(搜石)이 실패하더라도 제자나 친구들과 기쁘게 회합하는 장면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었다. 사전에 선유 소식을 인지한 그들이 최종 목적지인 도흥촌에 모였다. 대부분 임란 중 전장을 누비며 왜적으로 물리치거나 순절한 가족을 둔 충의의 의병장들이었다. 도흥은 전란을 회고하며 전란을 이겨낸 자긍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가 동량이 될 어린 세대에게는 충효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었다.<sup>10)</sup>

일정이 짧아 학문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강해하는 회합은 불가능했으나 전란 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전란으로 무너진 향촌 사회 체계를 정비하는 학자로서 책임감을 공유하고 학문을 진작하는 마음을 다졌을 것이다. 간송은 객지에 떠나있다가 1603년 겨울, 10년 만에 비로소 부친을 모시고 고향 검계(劍溪)로 돌아왔다.<sup>11)</sup> 그리고 그해 바람이 세찰수록 우는 소리 더 씩씩하고 서릿발이 엄할수록 푸른빛 더욱 짙어지는 시냇가 소나무에서 ‘澗松’이라는 호를 취해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마했다.

한강은 전란으로 각지에 흩어진 친구나 간송을 위시한 제자들의 근황이 궁금했을 터이다. 따라서 연화 동범은 학문을 강론하는 현장이라기 보다는 한강학파(한강문도)의 학문적 결속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그 의미가 컸고, 뱃놀이는 문인들 사이의 교유 관계에 효과적인 매개체였다.<sup>12)</sup> 이처럼 비석 찾기를 명분 삼아 스승의 고매한 학덕을 흠

10) 선유의 목적은 일반적인 풍류로서의 유람 말고도 동행자들의 특수한 의지와 결부되어 있었다. 예컨대 용화동범과 비슷한 시기인 1611년 7월에 노파 이흥(李屹), 목옹 권집(權渚)·상암 권준(權濬) 형제, 동계 권도(權濤), 동산 권극량(權克亮), 학호 김봉조(金奉祖), 용호 박문영(朴文楨) 등이 정인홍의 「회퇴변척소(晦退辨斥疏)」를 성토했기 위해 산청 적벽강에서 선유를 즐겼고, 당시 시와 ‘강성벽하범주도(江城壁下泛舟圖)’(『연방집록(聯芳輯錄)』 권7, 권8)를 남겼다. 참고로 이흥(1557~1637)은 조임도의 장인이자 황곡 이칭의 종생질이다.

11) 조임도, 「經亂後初還劍溪」, 『간송집』 권2.

12)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모하고 동지들과의 학적 유대감을 확인한 유람은 강렬한 인상을 남겨 이곳 낙동강 연안을 찾는 선비들에게 용화(龍華) 혹은 동범(同泛) 고사(故事)로 회자되었다.

## 2) 선유 기억의 전승과 인물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비석 탐색을 마치고 조식·조방 형제는 간소하고 정결한 술상을 차려 분위기를 돋우되 대학자에게 최대한 격식을 갖추 공경하고 엄숙한 술자리가 되도록 했다. 한강은 제자들과 함께한 그날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배안에서 매죽헌 이명호(李明憲)<sup>13)</sup>에게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간송이 남긴 후서에서 당시 선유에 동참한 이는 모두 35명이라 했다. 동범 연명록에 먼저 정구, 곽재우, 박충후, 장현광 순으로 적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사제 관계를 고려한 배열순서이고, 박충후는 5개월 뒤 윤6월 19일에 사간원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군수에서 물러났지만 시임(時任) 군수이었기에 앞자리에 넣었다. 우연하게도 나이 순서에 따른 것처럼 되었다.<sup>14)</sup> 연번 5번부터 35번까지의 나머지 31명은 관작이 아닌 나이순으로 배치하되 성명, 자, 나이를 차례로 적었다. 인명록이 완성되자 한강은 ‘龍華山下同泛錄’이라 작명하고 한 제자에게 잘 보관하도록 명했다. 조임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구분해 함안에서 온 사람

중심으로-, 『영남학』 18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12 ; 최윤정,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 연구-교유시와 船遊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참조

13) 출생지는 조임도가 출생한 검암리 하검동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상검동이고, 동생 이명경과 이명여, 종제 이명각과 이명념이 용화동범에 함께 참여했다. 부친은 남명의 제자 황곡(篋谷) 이칭(李稱, 1535~1600)이고, 숙부가 김해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장 충순당 이령(李儉, 1541~1592)이다.

14) 이 서술 순서는 용화동범을 정구와 곽재우를 중심으로 행해진 행사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실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손대현, 『『기략편방』 소재 龍華同泛 관련 작품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54집, 한국어문학회, 2021, 105쪽.

이 14명, 영산에서 온 사람이 10명, 창녕·현풍·고령에서 온 사람이 각 1명, 성산에서 온 사람이 4명이라 했을 뿐 여타 인적 정보는 제시된 것이 없다.

간송은 2월 28일 부친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는 아픔을 당했다. 외아들인 자신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거상대절십조(居喪大節十條)」를 손수 써서 치상기간에 언행을 조심했고,



자료3. 입암 조식(趙埴)과 문화류씨 부부 묘(상하). 함안군 대신면 장암리 60-21. 우측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간송의 묘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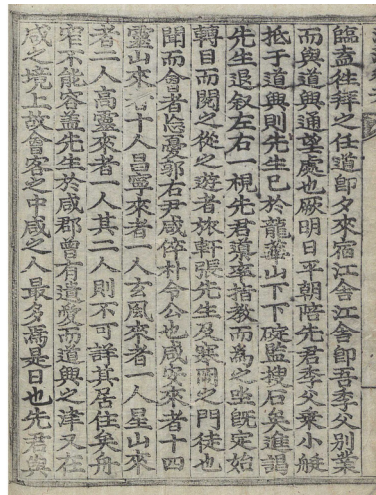
또 상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선친의 평소 언행을 담은 「추모록」을 완성했다. 용화산 서쪽 아호(鵝湖, 현 대신면 장암리 장포)에 묘소(자료3)를 썼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현저하게 다르게 찾아온 비애(悲哀)의 정서는 선유의 기억을 곧장 멀어지게 했다.

한편, 기억에 의존한 간송의 동병 인원 기록에서 미흡한 정보는 그가 함안 검암에서 칠월 내내로 이사하고 2년이 지난 뒤 우연한 기회에 보충하게 된다. 1620년 봄과 여름 사이에 내내의 간송 거처를 찾아온 도곡 안정(安挺, 1574~1636)으로부터 제 집에 『동병록』 초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책을 가져오게 하여 보았다. 그는 조식의 바로 위의 형인 조역(趙堧, 1546~1595)의 사위로 조임도에게는 사촌자형이고, 두 사람은 선유를 함께해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간송은 기쁜 마음으로 책자를 따로 만든 뒤 14년 만에 접한 초본의 내용을 옮겨적었다.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는데, 다만 간송이 등서 전후의 경과를 정리해 동년 가을에 지은 「용화산화동병록후서」(약칭 후서)가 문집에 실려 있다. 「후서」를 쓸 당시 광재우가 3년 전 1617년 4월에 별세했고, 한강이 1620년 1월에 78세 일기로 타계했다. 또 서문에서 뒤쪽

에 배치한 31명 연명자 중에서 이미 황천으로 돌아간 이가 8인이라 했다. 간송은 「후서」를 통해 스승과 선유를 함께한 특별한 추억과 생사에 대한 각별한 감회를 표현했다.

이 「후서」는 1607년 선유 일원인 박진영(朴震英)의 증손 박상절(朴尙節, 1700~1774)이 1758년 『기락편방(沂洛編芳)』을 편찬하면서 「용화산 화동범록추서」(약칭 추서) 이름으로 다시 수록했다. 앞쪽의 목록 구실을 하는 ‘용화산화동범록’에는 「후서」에서 언급한 선유 참가자 35명의 간략한 인적 정보를 처음으로 기입했다. 비로소 인물 전체의 윤곽이 드러났고 뒷날 동범록을 소개할 때 두루 인용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목록에서 제시한 이름 순서대로 자세한 생애 정보를 본문에 수록함으로써 인물의 면면을 상세히 알도록 했다. 전체를 통틀어봐도 한강보다 연장자는 다섯 번째 검계(儉溪) 이길(李佺)이 유일하다. 졸년이 미상인 그는 광평(성산)이씨 함안 입향조인 정무공 이호성(1398~1467)의 현손이다. 형이 황곡(篁谷) 이칭(李偁, 1535~1600)이고, 임란 때 창의해 김해읍성에서 순절한 충순당(忠順堂) 이령(李儉, 1541~1592)이 동생이다.<sup>15)</sup>



자료4. 박상절, 「용화산화동범록추서」, 『기락편방』<46b>.

여기서 흥미로운 건 두 서문 사이에 문

15) 가야읍 검암리 상검동마을에 사적지 동산정(東山亭), 황곡서원(篁谷書院), 충순당(忠順堂), 검계정(儉溪亭)이 있다. 이중 동산정은 세조 때 병조판서를 지낸 정무공 이호성(1398~1467)이 1459년경 동지산 기슭의 함안천 절벽 위에 최초로 지었고, 손자 이희조가 동산정으로 명명했다. 또 다른 손자 이순조의 손자, 곧 고손이 이칭·이길·이령·이전이다. 이들의 외삼촌이 갈천 임훈(林薰, 1500~1584)과 첨모당 임운(林芸, 1517~1672) 형제이다. 정무공은 대대로 경북 김천에 살았으나 지평현감을 지낸 안여경(安餘慶)의 사위가 되면서 처가인 함안에 로 이사해 정착했다.



둘째, 간송이 14년간 동범록을 온전하게 보존한 안정(安挺)의 면밀함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대목을 끝에 추가한 점이다.

만약 화공(畫工)을 얻어 잘 묘사한 그림을 얻고, 또 동범록을 몇 첩의 작은 병풍으로 장정하거나 한 폭의 작은 족자를 만들어 집 벽에 걸어 두고 마음과 눈을 머물게 하여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양 환하게 해 준다면 안군(安君)의 은혜는 더욱 현격할 것이다.<sup>16)</sup>

용화산 선유를 그림으로 재현하거나 동범록을 작은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어 집에 비치함으로써 선대의 아름다운 풍류 자취를 즐기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는 간송이 실제 한 말인지 아니면 박상절이 지어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윗글은 『간송 별집』의 「후서」에 나오지 않고 『기락편방』의 간송 「추서」에만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박상절이 간송의 「추서」를 읽고 난 뒤의 감상문을 덧붙였다.<sup>17)</sup>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가 1727년 가을 조임도의 현손으로서 용화산 별장에 살던 조홍엽(趙弘燁, 1687~1761)을 우연히 방문하고 그를 통해 『동범록』과 「추서」 실물을 처음으로 접했다. 이듬해 2월에는 그때의 감격스러움과 선현을 추모하는 마음을 곡진하게 묘사한 발문을 지었다. 안정이 선유 사실을 기록한 지 120년 만이요, 간송이 서문을 지은 지 107년이 되던 해였다. 이로써 필사본 『연화산하동범록』은 안씨 집안에서, 간송의 서문은 조씨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며 소중히 보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상절은 1607년 선유에 동행한 인물을 현양하기 위해 1758년 『기락편방』을 목판으로 간행해 보급했다.<sup>18)</sup> 서문에 이어 35명의 인

16) 조임도, 「龍華山下同泛錄追後序」(박상절, 『기락편방』<49b~50a>), “如得工畫善寫之妙, 旣圖且錄, 粧成數疊短屏, 或造一幅小軸, 掛之堂壁, 留之心目, 赫赫若前日事則, 安君之惠又加遠矣.”

17) 박상절, 「謹書龍華山下同泛錄追後」, 『기락편방』<50a~52a>.

18) 참고로 『기락편방』은 박상절의 조부 박형룡이 1634년 참여한 현풍 풍영대에

적 사항을 목록으로 제시한 뒤 본문에서 인물마다 구체적인 생애를 기술했으며, 발문에 이어서 지면을 상하로 구획해 제화시와 선유의 장면을 요약적으로 배치했다. 마치 간송의 제안을 실천이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용화산수도(龍華山水圖)’라 지칭한 여덟 칩의 판화를 수록해 글로써 전달할 수 없는 풍류 현장을 생생하게 감상하도록 했다. 마지막 도판 뒤에는 자신이 1744년 9월에 지은 발문을 붙였는데, 증조 박진영을 위시한 선현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도판에 내포된 함의를 풀이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이충민과 최문주의 정보 제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충민의 추록 기사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1742년 봄에 칠곡에 사는 선비 이광준(李光俊, 1695~1761)이 박상절의 집에 유숙하면서 우연히 『동범록』을 보다가 이충민에 이르러, “이분은 바로 우리 선조인데 어찌 유독 자와 나이, 거주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박상절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몇 차례 문답을 통해 이충민이 한강을 곁에서 모시며 받은 사랑, 그의 생년과 자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 이광준의 선조와 사실이 부합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1758년 출간된 『기략편방』에 인물 정보가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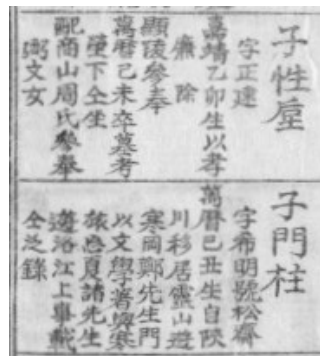
그런데 최문주(崔門柱)는 『기략편방』에서 빈칸으로 처리한 이후 현재까지 270년 동안 미상의 인물로 남아 있다. 간송의 「후서」 작성 기준으로는 계산하면 자그마치 400여 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길은 전혀 없는 걸까. 해법의 단서는 뜻밖에 간단한 데서 찾았는데, 한국문집총간에서 바로 검색이 되는 장석룡(1823~1908)의 글<sup>19)</sup>이다. 그는 선유를 이끈 장

새긴 풍류의 자취 기록을 합편한 책이다. 박형룡은 박진영의 아들이자 두암 조방(趙邲)의 손서이다.

19) 장석룡, 「松齋崔公龍華同泛錄跋」, 『유헌집』 권9, “松齋崔公諱門柱字希明, 慶州人. 性純粹, 學造高明. 早廢科舉, 師事寒岡鄭先生, 庸學朱退等書, 理會貫通. 親喪廬墓, 孝聞鄉黨. 龍蛇之亂, 避兵伽北居山亭, 日哦松下, 因以爲號. 靈咸之間, 有龍

현광의 후손이다. 그리고 1917년 하경진의 발문을 받아 석판본으로 간행한 『하산삼세고』이다. 전체 5권 중 권2가 성경침(成景琛)의 『작계일고』이고, <척유>편에 수록한 「용화동범록」 마지막에 “崔門柱希明己丑陝川松齋”라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기록은 단편이나 요긴한 생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주최씨 족보를 추적한 결과(자료6), 그는 사성공파(司成公派) 파조 최예(崔沍)의 7세손임이 확인되었다. 또 1589년 합천에서 태어나 영산으로 이사해 살다가 1654년에 졸했다. 자가 희명(希明)이고, 호는 송재(宋齋)이다. 한강의 문인으로서 문학(文學)으로 저명했고, 1607년 낙동강 유람에 참여했다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다. 흥미롭게도 35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9세였다.



자료6. 최의종 편, 『경주최씨대동보』 권2<27b>, 서약서원, 1927.

족보상 송재의 가계는 <최예-최상정-최우강-최득하-최삼로-최원천-최성후-**최문주**-최순부-최계성-최자봉-최석(崔碩)-최세준-최재효/최순효/최민효>로 이어진다. 대대로 경주에서 살다가 파조의 5세손 최원천이 합천으로, 또 손자 최문주는 합천에서 영산으로 이거했다.

그리고 최문주의 현손 가은 최석(1696~1761)은 합천에서 영산으로, 또 가은의 4남 최세준(1743~1805)은 1790년경 영산에서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로 이사했다. 이곳에 사는 최민효의 고손 최성규(1876~1946) 등이 1932년 문중 의논을 결집해 경송재(景松齋)를 지어 송재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후손들은 경산산전문중(慶山山田門中)이라 부른다. 모현계(慕賢契) 차원에서 이 문중과 최근에 소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

華山, 洛江下流絕勝處也. 寒旅兩先生及郭忘憂·李畏齋·趙澗松諸賢三十五人同舟, 序齒以錄, 公參其一, 名之爲龍華同泛錄.”

테20) 향후 문헌에 반영해 동범 목록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상의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35명의 명단을 아래의 표로 제시한다.

<표1> 용화산하동범에 참가한 인물들의 개요

	성명	생졸	자	호	거주	본관	문집	비고
1	정구(鄭逵)	1543~1620	道可	寒岡	성주	청주	한강집	안동부사 제수
2	곽재우(郭再祐)	1552~1617	季綏	忘憂堂	창녕	현풍	망우당집	전 한성우윤
3	박충후(朴忠後)	1552~1611	景述		성산	순천		함안군수
4	장현광(張顯光)	1554~1637	德晦	旅軒	칠곡	인동	여헌집	전 의성현령 鄭述의 질서
5	이길(李佺)	1538~ ?	汝閒	獨村 儉溪	함안	광평 (성산)	검계집	李佺의 제
6	성경침(成景琛)	1543~1610	仲珍	紫岳 鵲溪	함안	창녕	작계일고 (하산삼세고2)	관해정 건립
7	신초(辛礎)	1549~1617	支叟	聞巖	영산	영산	문암충의록	전 보성군수
8	조식(趙埴)	1549~1607	克成	立巖	함안	함안		趙任道の 부친
9	이숙(李瀟)	1550~1615	汝澄	葛村	함안	재령	갈촌실기	趙埴의 사돈 朴震英의 외숙
10	노극홍(盧克弘)	1553~1625	毅甫	沃村	창녕	광주	옥촌고 (광주노씨세고7)	鄭述의 생질
11	신방집(辛邦楫)	1556~ ?	汝濟	永慕堂	영산	영산		辛礎의 족제
12	조방(趙擲)	1557~1638	克精	斗巖 伴鵲亭	함안	함안	두암집	趙埴의 제
13	이후경(李厚慶)	1558~1630	汝懋	畏齋	영산	벽진	외재집	鄭述의 從생질서
14	나익남(羅翼南)	1558~1646	天紀	菊菴	함안	나주	국암집	함안교수

20) 모현계는 용화동범록 인물의 후손들 모임으로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부산대 점필소연구소, 경북대 퇴계연구소 HK3.0사업단이 제4차 강안학 학술대회를 밀양시립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했는데, 13년간 모현계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권곤 님은 당일 본 논문을 발표한 필자에게 최문주 집안이 2024년부터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송재공의 후손인 영남대 최성렬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龍華山下同泛」을 보내왔다. 글 속의 서문은 조임도의 「추서」를 베낀 것인데, 이충민의 인적 사항을 추록하면서 아울러 『기략편방』에 없는 “希明己丑 陝川” 정보를 최문주 난에 추가했다. 그리고 최석의 『가은유집』이 2019년 국역된 사실도 알았는데,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신 간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한편 1973년 함안 능가사 뒤편에 모현정(慕賢亭)이 창건되었는데, 내벽의 ‘용화산하동범록’ 편액에 최문주의 정보가 역시 빠져있다.

15	이도자(李道孜)	1559~1642	至之 復齋	영산	벽진	복재집	李厚慶의 장질
16	유해(俞諧)	1565~1612	欽哉	영산	탐진		최명길과 동년
17	이명호(李明浩)	1565~1624	養初 梅竹軒	함안	광평	매죽헌집	李偁의 장남
18	이도유(李道由)	1566~1649	明之 滄浪叟	영산	벽진	창랑수집	李道孜의 제
19	박진영(朴震英)	1569~1641	實哉 匡西	함안	밀양	광서집	李瀟의 생질서
20	이명경(李明敬)	1569~1637	一初 菊庵	함안	광평		李明志의 제 李眞의 양자
21	이명념(李明念)	1571~ ?	而聖 永慕齋	함안	광평		李倫의 장남 李明愍의 종제
22	신옹(辛膺)	1572~1609	伯禧	영산	영산		辛礎의 족제 郭再祐의 사위
23	이명각(李明愍)	1572~ ?	子純	함안	광평		李偁의 차남 趙信道の 사위
24	이명여(李明愈)	1573~ ?	慶初 竹窩	함안	광평		李明愍의 제
25	안정(安挺)	1574~1636	子長 道谷	함안	광주	도곡집	趙埴의 질서 趙任道の 從자형
26	이시함(李時諄)	1575~1660	聞遠 隴雲	고령	성주	농운실기	李栻의 7세손
27	곽형(郭滢)	1578~1612	淸叔 溪翁	현풍	현풍		郭再祐의 장남
28	이도일(李道一)	1581~1667	貫之 消憂軒	영산	벽진	소우헌집	李道由의 제
29	이란귀(李蘭貴)	1584~1644	夢與 瑟谷 子馨	성산	광산	슬곡일고 (광산세고2)	鄭述의 처질
30	류무룡(柳武龍)	1584~ ?	景漂	성산	문화		鄭述의 처남사위 李蘭貴의 매부
31	조임도(趙任道)	1585~1664	德勇 澗松堂 致遠	함안	함안	간송집	趙埴의 자
32	이도보(李道輔)	1587~1651	益之 益庵	영산	벽진	익암유고 (외재집 부)	李厚慶의 자 李道孜의 종제
33	이해(李滢)	1587~ ?	而浩	영산	벽진		李道孜의 차남
34	이충민(李忠民)	1588~1673	汝直 慕巖	칠곡	벽진	모암집	李堅幹의 12세손
35	최문주(崔門柱)	1589~1654	希明 松齋	영산	경주		

### 3) 용화동범의 감흥과 시 창작

용화산 동범은 스승과 제자가 배를 나누어 타고 낙동강의 절경을 감상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원석 찾는 원래 목적은 실패했지만 학문 동지들이 모여 회포를 읊는 시간은 값진 경험이었을 것이다. 다만 서로 시창화(唱和)는 없었는데 조임도는 그날의 선유 감흥을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더구나 지금 세상에 함께 살면서 몸소 그 모습을 뵈고 때를 같이하여 한 배 안에 모두 모였음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리고 나와 부친이 또 좋은 모임에 참여하여 맑은 모습을 가까이하며 지란(芝蘭)의 향기에 흠뻑 스며들고 강호의 크를 마음껏 구경하였으니, 진정 한 시대의 성대한 결집이자 인간사의 멋진 일이었다.<sup>21)</sup>

스승의 덕망과 기상에 흠뻑 젖고 탈속의 인품에 감동하면서 낙동강의 넓은 호수를 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던 23세의 청년 간송에게 그날의 선유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스승과 지우의 만남을 “한 시대의 성대한 결집이자 인간사의 멋진 일”로 규정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노파(蘆坡) 이훤(李屹)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해 정월로 같은 달이었다.

대개 유람록은 코스별 감회를 읊은 시와 더불어 동참한 인물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보편적 형식이었다.<sup>22)</sup> 대규모의 동문 회합에 시의 창화가 있었을 법하지만 빠듯한 일정으로 그렇게 하질 못했다. 동범록이 간단한 인명록이 되고 만 이유이다. 다만 18세기 후반에 목판으로 간행된 『기락편방』의 8장면 관화에 부기된 제화시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편찬자 박상철이 1744년 가을에 지은 5언시일 따름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선유 직후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두 편의 시가 문집에 전해져 아쉬움을 그나마 보충해 볼 수 있다.

21) 조임도, 「龍華山下同泛錄後序」, 『간송 별집』 권1, “況今竝生當世, 親見其面目, 同時咸聚於一舟之中? 而任道父子又得參佳會邇清光, 薰襲芝蘭之馨, 縱觀江湖之大, 真一代之盛集, 人間之勝事也”

22) 작품과 함께 동행자 연명록 작성은 일반적인 유람록 기록방식이었다. 하강진, 「백산 안희제의 ‘황계폭포’ 시 발굴과 그 의의」, 『근대서지』 14, 근대서지학회, 2016 ; 하강진, 「백산 안희제의 가학 전통과 유람시-장석신의 『남유록』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2, 부산경남사학회, 2017 참조.

- ① 龍華山下大江流      용화산 아래로 큰 강 흐르는데  
 共載諸賢一葉舟      여러 현인이 한 조각배에 탔네  
 胸襟灑落饒真樂      가슴 속 맑고 깨끗해 참된 즐거움이 넉넉하나니  
 難再人間此日遊      인간 세상 오늘 같은 유람은 다시 있기 어려우리  
 - 노극홍, 「龍華泛舟」, 『옥천고』(『광주노씨세고』 권7<2b~3a>)
- ② 函筵卒業更無緣      스승께 학업을 마쳐 다시 만날 인연 없더니  
 風雨驅馳已廿年      비바람 속을 치달린 지 벌써 이십 년이라네  
 袵革功名非素計      갑옷 입고 공명 이름은 본래의 계획 아니었고  
 衣冠者舊總名賢      의관 입은 어른들은 모두 이름난 현인 되었네  
 三月春風和氣襲      삼월 봄바람에 따스한 기운 스며들고  
 千秋水月道心傳      천년 세월 물속의 달은 도심 전하는데  
 如何永脫塵羈繫      어떡하면 세속의 굴레 영원히 벗어나  
 從事緇帷寂寞邊      울창한 숲속 적막한 곳에서 강학할까  
 - 박진영, 「龍華同泛後述懷」, 『광서고』 권1<4a>

①은 옥천 노극홍(1553~1625)의 시로 선유 당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창녕현 옥야리(현 이방면 동산리) 출생이고, 김해 금곡에 정착한 그의 증손 노한석(盧漢錫)의 7세손이 소년 노상직(盧相稷, 1855~1931)이다. 6세 때 외삼촌 정구가 자식처럼 길러주었고, 1576년 부친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강의 가르침을 받았다. 1580년 한강이 생애 첫 벼슬인 창녕현감으로 부임해 관내의 네 방면에 서재를 세워 학문을 일으킬 때 노극홍에게 관산재(冠山齋)를 맡겼다. 또 광재우가 화왕산성을 지킬 때 서기를 맡아 형편에 알맞은 대책으로 왜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고, 왜란이 평정되자 집으로 돌아가 여러 번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노극홍은 55세 때 스승이자 외삼촌인 한강이 선유를 실행하자 창녕에서 배에 함께 타고 내려와 광재우의 망우정사에서 묵은 듯하다. 그리고 한강과 함께 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고 도흥촌에서 같이 석재를 찾았고, 3일째 되던 새벽에 귀갓길에 오른 한강을 모시고 갔던 것으로 보

인다. 낙동강의 넓은 물길을 따라 배를 띄우고 현인 한려(寒旅)와 함께 한 유람의 의미를 ‘진락(眞樂)’으로 표현하고 세상에서 누리기 힘든 진귀한 경험으로 인식했다. 동범 당일 현장에서 지은 시로는 유일하다.

②의 시는 광서 박진영(1569~1641)의 작인데 제5행을 볼 때 동범 이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부친은 동천(桐川) 박오(朴旼)이고, 모친은 함안 입향조 모은 이오(李午)의 현손인 이경성의 딸이다. 함안조씨 집성촌인 가야읍 검암리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의 간송과 절친했다. 가학을 배우다가 부친의 연고로 남명 조식의 문인인 이칭, 박제인, 최영경, 오운, 조종도, 하항 등의 지역 선비를 중유했다. 임란 때 함안군수 류승인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선무원종공신 2등에, 1624년 이괄의 난 때 평산부사 겸 황해도방어사로서 도원수 장만을 도와 진무원종공신 1등에 각각 책록되었다. 문집 발문을 쓴 만성 박치복(1824~1894)은 그의 7세손이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박진영은 1587년 한강 정구에게 사사했다. 위의 시 1행에서 학업을 마쳤다 함은 임진왜란으로 더 이상 배울 수 없었다는 뜻이다. 1601년 용궁현감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다가 이듬해 안인촌으로 이거했고, 1605년 경원관관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풍파를 헤쳐온 20년 되던 1607년 정월의 용화동범에 참가했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3월에 두 달 전에 함께한 현인들을 회고하고 있다. 용화산 아래 낙동강에 비치는 달빛에서 변함없는 도심을 읽어낸다. 박진영은 높은 공명을 분디 바란 것은 아니나 1613년 경흥부사가 되기까지 그를 천거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는 출사와 은둔 사이를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히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1625년 평산부사를 끝으로 벼슬에 나가지 않고 1630년 창원 광려산(匡廬山) 아래에 집을 지어 책과 거문고로 스스로 즐기며 날마다 학생들과 강학했다. 허목은 박진영 생애를 예리하게 포착한 구묘문(丘墓文)을 지었는데, 그의 일관된 충성심과 청렴함은 흔탁

한 사람을 경계하고 선량한 사람을 권장할 것이라며 칭송했다.<sup>23)</sup>

### 3. 합강정 권역 선유 공간의 장소성 읽기

#### 1) 蓬山浴行錄과 경유지로서의 용화산

한강 정구는 증풍을 치료하기 위해 1617년 7월 20일 사빈(沙濱)을 출발해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지암(枝巖)에서 배를 타고 도동서원, 창녕, 함안, 수산, 양산, 김해, 구포를 거쳐 7월 26일 동래온천에 도착했다. 이후 29일을 더 머물면서 느긋하게 온천욕을 하고 8월 26일 육로를 이용해 언양, 경주, 경산을 거쳐 9월 4일 사빈에 돌아왔다. 한강 나이 75세 때의 일이다. 석담 이윤우(李潤雨, 1569~1634)가 45일간 고령의 스승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봉산욕행록(蓬山浴行錄)」이다. 동래욕행에서 정구가 만난 사람은 300명을 상회하고, 문인으로 실명이 확인된 인물은 약 80명이다.<sup>24)</sup> 이 동래 온천행은 동년 2월 16일부터 사빈서재에서 강학하던 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 중에서 44명이 한강과 더불어 욕행을 함께 하거나 도중에 선생을 맞이한 사람들이다.<sup>25)</sup> 특히 한강의 동래 체류와 온천욕을 성심껏 도운 이는 용화산 선유에 함께한 노극홍, 신방집, 조방, 이후경, 이도자, 이도유, 안정, 이도일, 이란귀, 류무룡, 이도보이다.<sup>26)</sup>

23) 허목, 「朴平山碣」, 『미수기언』 권19, “忠不見功, 廉不見容, 順受其正, 窮亦不慍, 汚濁之戒, 良善之勸”. 『기략편방』의 박진영 행적에서는 허목의 묘갈명을 조금 바꿔 수록했다.

24)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6, 130쪽.

25) 장인진,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남명학』 84호, 영남문화연구원, 2023, 268쪽

26) 특히 이후경과 이도자는 이서·이천봉·이육 등과 함께 한강의 입욕 안전을 위해 8월 25일까지 당직을 5일씩 섰다. 「蓬山浴行錄 연구」, 경북대 대학원, 한

동래에 도착하기 앞서 용화산 아래 낙동강 연안에서 이틀간 체류했는데 당시 회합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월 22일 한강 일행은 저물녘에 기강(岐江)에 도착했다. 이곳이 유숙하기 불편하다고 해 도흥탄(道興灘)에서 이미 기다리던 이후경(李厚慶)이 정해 놓은 촌가 앞에서 하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창원부사 신지제(申之悌)가 상포 경양대(景釀臺) 아래에 수리해 놓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한강은 이석경과 함께 유숙했다. 이후경과 이윤우는 촌가에서 유숙하고, 노극홍·이천봉·이육 등은 배 안에서 잤다. 비바람이 크게 불어 한강은 일행의 안전을 많이 걱정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23일 아침에 내리던 비가 늦게 잤다. 식사 후 10시경 창원부사 신지제(1562~1624)가 두암대(斗巖臺) 위에 천막을 치고 술자리를 마련하자 한강은 가마에서 내려서 경치를 감상했다. 이윽고 한



자료7.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에서 본 도천면 우강리 창암정.

강은 부사와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창암정(滄巖亭, 자료7)을 바라보았다. 저녁 무렵 창원 본포(本浦)에 이르러 이석경·이후경 형제, 노극홍, 이윤우, 이천봉이 한강을 모시고 촌가에서 잤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배 안에서 잤다.

지금까지 9편의 시가 알려져 있으나 간송의 숙부 두방 조방(1557~1638)의 시를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10수가 된다.

- |                                 |   |
|---------------------------------|---|
| ① 十里清江兩岸沙<br>風飄高掛白鷗波<br>誰知一席同人會 | 십 리 맑은 강가 두 언덕 모래밭인데<br>돛대가 백구 노는 물가에 높이 걸렸네<br>누가 동지들 한자리에 모일 줄 알았으리 |
|---------------------------------|---|

- 俯暢遙吟逸興多<sup>27)</sup> 마음껏 읊조리니 뛰어난 흥취 많아지네 -李潤雨
- ② 晴江日色動明沙 맑은 강 햇빛이 모래 위에 반짝이고  
 銀沫飛空櫓夕波 저녁 물결에 노 저으니 은빛 포말 날리네  
 猥忝鄭庄賓客地 외람되어 현인의 빈객 자리에 끼었거니  
 仙舟千載較誰多<sup>28)</sup> 천년을 비교해서 선주가 누가 더 많은가 -申之悌
- ③ 小艇風飄傍白沙 작은 배 바람 따라 백사장 곁에 있는데  
 俯流閑弄碧瀾波 강 굽어보니 푸른 물결 한가히 넘실대네  
 佳賓惜別還停棹 손님 이별이 아쉬워 다시 노를 멈추니  
 始信從前分義多<sup>29)</sup> 비로소 예전에 교분이 깊었음을 믿겠네 -李籟
- ④ 清江左右鋪銀沙 맑은 강 좌우에는 은빛 모래가 깔렸고  
 一片輕帆鏡漾波 한 조각 가벼운 돛이 수면 물방울 튕긴다  
 久仰聲華今若舊 오래 우러르던 명성은 지금도 옛날 같고  
 秋風滿酌不辭多 추풍 속 가득 권해도 사양도 하지 않네 -李天封
- ⑤ 秋雨初晴水滿沙 가을비 막 개자 물이 모래톱에 가득한데  
 蘭槳棹罷夕陽波 목란 상앗대 저어 석양 물결에 멈추었다  
 中流頓覺胸襟爽 강 가운데서 어느새 가슴 상쾌하고  
 清興陶陶十分多<sup>30)</sup> 맑은 흥취 도도히 많이도 넘쳐나네 -李厚慶
- ⑥ 扁舟一葉傍平沙 일엽편주가 넓은 모래밭 곁에 있나니  
 鷗鷺雙雙泛碧波 갈매기 쌍쌍이 푸른 물결에 떠 다니네  
 日暮蒼茫秋色遠 날 저물자 아득하여 가을빛 멀어지는데  
 浩然清興此時多 맑은 흥취가 호연하게 이때 넉넉해지네 -李道孜

27) 이운우의 『석담집』 권1에 「景釀臺下舟中」 제목으로 실려 있다.

28) 신지제의 『오봉 별집』에 「景釀臺下 次李茂伯潤雨韻」 제목으로 실려 있다.

29) 이서의 『동호집』 권1에 「景釀臺 與諸賢相和韻」 제목으로 실려 있다.

30) 이후경의 『외재집』 권1에 「寒岡先生有蓬山浴行 時昌原府使申順夫 乘船來待岐江 行至斗巖 先生入宿村舍 與陪行門徒 於舟中呼韻相和」 제목으로 실려 있다. 문자 출입이 있다.

- ⑦ 千里長江十里沙 천 리 긴 강에 모래톱이 십 리인데  
 一生身世付滄波 한평생 신세를 푸른 물결에 부쳐보네  
 幸隨函丈中流下 다행히 스승 따라 중류로 내려가거니  
 方信人間樂事多 세상에 즐거운 일 많음을 비로소 믿겠네 -李埈
- ⑧ 一帶長江十里沙 한 줄기 긴 강에 십 리 모래밭인데  
 今來吾道付滄波 지금 와서 우리 도를 창파에 부쳐보네  
 追隨函丈扁舟下 스승을 따라서 조각배로 내려가니  
 到處雲山樂意多<sup>31)</sup> 도처의 운산에 즐거움이 넘쳐나네 -盧克弘
- ⑨ 細雨初晴月滿沙 가랑비 막 개자 달빛이 모래톱 가득한데  
 幸隨函丈浴沂波 다행히 스승 따라 기수 물결에 목욕하네  
 蘭舟擊下秋江上 작은 배 두드리며 가을 강 내려가거니  
 聞說蓬萊靈藥多<sup>32)</sup> 듣건대 봉래에는 신비한 약 많다지 -盧垓
- ⑩ 岸下清江岸上沙 언덕 아래 맑은 강물 언덕 가엔 모래톱  
 輕舟一葉溯流波 한 조각 가벼운 배가 물결 거슬러 가네  
 棹歌呼唱機心斷 뱃노래 소리 높여 부르니 욕심 끊어지고  
 麗水佳山分內多<sup>33)</sup> 아름다운 산수가 안에서 많이 나누어졌네 -趙塲

위의 ①~⑦는 『석담집』의 「봉산욕행록」에 나오는 순서이다. ⑧·⑨는 『한강선생봉산욕행록』<sup>34)</sup>과 개인 문집에, ⑩은 『두암집』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시 창화를 주도한 오봉 신지제(1562~1624)는 조지(趙址)의 사위로 조임도의 사촌자형이다. 1613년 가을부터 창원부사로 지내던 그는

31) 노극홍의 『옥천고』에 「斗巖舟中」 제목으로 실려 있다.  
 32) 노해의 『국담집』(『광주노씨세고』권11)에 「斗巖舟中」 제목으로 실려 있다.  
 33) 조방의 『두암집』 권1에는 「丁巳秋 寒岡鄭先生作東萊溫井之行 舟次斗巖 鄭先生入宿于江村 因與諸公舟中相和」 제목으로 실려 있다.  
 34) 이 책은 회연서원에서 1912년 3월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참고로 소눌집안에서 전해오던 초고본 「봉산욕행록」은 현재 전하지 않고 다만 「蓬山溫泉浴行日記」(1925)가 있다. 이태희, 「「蓬山溫泉浴行日記」에 나타난 盧相稷의 동래온천 여행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62집, 동양한문학회, 2022 참조.

한강이 함안을 경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숙식을 제공하려고 철저히 준비했다. 동호 이서(1566~1651)는 이흥우의 아들로 고모부인 한강의 제자가 되었고 사위가 허적이다. 백천 이천봉(1567~1634)은 형 이천배(李天培)와 함께 이모부인 한강을 사사해 「한강선생언행록」을 저술했다. 곧 이서와 이천봉은 고종과 외사촌 사이였다. 이후경과 이도자는 숙질간으로 용화동범(龍華同泛)에 나오는 인물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국담 노해(1598~1663)는 용화동범에 참가한 노극홍의 손자이자 노세후의 조카이며, 심원당 이육(1572~1637)은 청취당 이승(李承)의 장남이다. 이중 이서, 이천봉, 이도자, 이육, 이후경은 한강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제자로 스승의 온천욕을 돕기 위해 한 달간 날짜를 분담해 당직을 섰다. 그리고 두암 조방은 상포(上浦)에 별장 반구정(伴鷗亭)을 짓고 살면서 용화동범 때 한강 일행을 모셨던 인물이다.

위 시들은 각주에서 보듯이 창작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 배 안에서 시를 짓되 주유한 장소를 경양대 아래(이윤우, 이서, 신지제의 경우) 혹은 두암(노극홍, 이후경, 노해, 조방의 경우)이라 했다. 여기서 이윤우의 일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월 23일 자에 일곱 편의 시가 실려 있고, 그날 아침 10시경 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쳤다고 했다. 곧 시에서 읊은 대로 ‘맑은 햇빛이 비치고’(②), ‘비가 막 갠’(⑤, ⑨) 날짜를 고려하면 작시 날짜는 23일이 분명하다.

한강 문도들은 경양대 아래의 강촌을 떠나 두암대를 거쳐 배 안에서 창암정을 바라 보고 석 달 전에 작고한 정자 주인 곽재우(郭再祐)의 충의대절(忠義大節)을 추모했다. 그들은 치료차 남행한 스승과 함께하는 주유를 두고 ‘낙의(樂意)’, ‘일흥(逸興)’, ‘청흥(淸興)’, ‘낙사(樂事)’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주유의 서정을 감개무량한 기쁨으로 표현했다. 전체를 지배하는 시적 분위기는 ‘樂’과 ‘興’이다. 이는 퇴계의 선유사에서 발현된 미적 감흥과 맥락이 닿아 있다.<sup>35)</sup>

35) 김원준, 「퇴계 船遊詩를 통해 본 ‘樂’과 ‘興」, 『퇴계학논집』 9호, 영남퇴계학연

한강의 봉래 육행에서 용화산 아래의 탐방 장소는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 도흥탄, 경양대, 두암대, 창암정 등은 낙동강 중류에서 하류에 내려오는 뱃길 거점 지역으로 언급되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일화는 저장되지 않았다. 광재우의 충절을 훌륭하다 칭송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갑절이나 서글프다고 했지만 정작 작품 의경은 흥락(興樂)한 분위기에 매몰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서 거쳐 가는 성격이고,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있었던 짧은 여정의 용화산 동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숙부 별장이 있던 칠원 상포의 반구정은 수로 교통의 요지에 있었다. 창녕과 밀양 사이의 낙동강 뱃길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였다. 사람이 왕래하고 물자가 유통하는 용화산 아래 뱃놀이는 일상적인 문화 활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1603년 십년간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해 초옥 곤지재(困知齋)를 지어 학문에 열중하던 간송에게 1610년 이후로 요동치는 정국은 새로운 거처를 물색하게 했다.

## 2) 조임도에 의해 구체화된 선유 장소

### (1) 칠원현 내내 이사와 경양대

간송은 북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1611년 퇴계를 배척하는 상소에 반대했고, 1618년 대비 폐위를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조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향후 닥칠지도 모를 신변의 위협을 피해 동년 9월 어느 날 함안 검암리에서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땅이 외진 칠원 내내(柵內)로 이사했다.<sup>36)</sup> 생가에서 수십여 리 떨어진 이곳은 주세붕(1495~1554)의 손자 주익창(周益昌)<sup>37)</sup>이 살던 집터로 한강(寒岡)

구원, 2011 참조.

36) 조임도, 「柵內新居說」, 『간송 별집』 권1.

37) 1593년 가을에 왜적에게 피살된 주익창은 효성과 우애로 이름나 광해군 때 정려가 내려졌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도 제7권)에 “익창단지(益昌斷指)”

이 일찍이 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인연이 있던 곳이다.

마을 북쪽에는 큰 강을 따라 층암절벽이 몇 리를 둘러싸 기이한 절경을 이루고, 또 노어암(鱸魚巖)과 일찍이 이인로(1152~1220)가 노닐었다고 하는 경양대(景釀臺)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동북쪽에는 곽재우가 생전에 경영한 망우정이 멀리 있고, 서쪽으로 어부 두세 가구가 사는 도흥보(道興步)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촌 풍경이 수려한 상포(上浦)가 있는 지세였다. 간송은 곧 내내의 강 언덕에 상봉정(翔鳳亭)을 지어 스승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아울러 선영이 가까이 있어 성묘하기에 편하고 이곳저곳의 연못에 붕어가 많이 잡혀 모친을 봉양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극한 효도에도 불구하고 1621년 2월 모친 문화류씨가 별세했고, 부친 묘 아래에 유택을 조성했다. 또 3년 상을 마치고는 아호 여묘 아래에 재실 상로암(霜露庵)을 지었다.

一鶴高飛萬仞天	학 한 마리 높이 날아 만 길 하늘에 오르니
江湖勝地好盤旋	강호의 경치 좋은 곳이라 배회하기 좋구나
由來飽食終媒禍	원래 배불리 먹는 일은 끝내 화를 부르나니
莫逐秋鴻近稻田	가을 기러기 쫓아 벼논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

위 시는 편액을 ‘翔鳳’이라 명명하고 나서 지은 「강상잡흥(江上雜興)」 14수 중 제6수이고, 『간송집』의 「연보」와 같암 이현일(1627~1704)의 간송 행장에 인용되었다. 하늘 높이 날아 배회하는 학처럼 지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며 화를 초래하는 욕심을 버려 심신을 다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봉황이 나는 듯한 정자의 형상에서 명칭이 유래한 것이 아니라 언외의 경지에서 유유자적하는 지향과 봉황의 힘찬 기상(氣像)을 담은 뜻이라 스스로 풀이했다.<sup>38)</sup>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주익창의 아내 이씨, 제수 김씨도 함께 빠져 죽었으니 열녀도 제3권의 “이부익사(二婦溺死)”이다.

38) 양시우, 「翔鳳亭記」(『간송 속집』 권5<부록>).

간송이 “복지(福地)”라 하여 처사적 삶을 누리는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한 내내(奈內)는 개성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공간으로 깊이 들어앉았다. 이에 간송은 지인들과 선유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고, 그런 만큼 다량의 문화적 기억을 작품이나 장소에 저장할 수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간송은 1626년 3월 여헌의 제자로 상호 절친인 한몽삼(1589~1662), 박도원(1593~1648)과 장암 조영문(1588~1653)을 내내 상봉정으로 초대해 1박 2일을 같이 보내며 배를 타고 용화산 아래의 봄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한몽삼은 간송이 그날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글을 요청하자 「내내선유서(奈內船遊序)」(『조은집』 권2)를, 박도원은 「내내선유기(奈內船遊記)」(『농은집』 권1)를 각각 지었다.<sup>39)</sup> 또 넉 달 뒤 7월에는 한몽삼·박도원과 배를 함께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도동서원과 오산서원을 참배하고, 인동에 거주하던 스승 여헌을 배알했다.<sup>40)</sup>

내내의 핵심 경관은 뭐라 해도 푸른 절벽이 높이 솟아 두려워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다고 한 경양대(景釀臺, 자료8)이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 경물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누룩이 술을 빚어낸 것과 같아 ‘景釀’을 이름으로 붙였다고 했다. 선초의 변계량이 시를 지어 경양대 승경을 노래했고, 주세붕은 칠원현의 대표 경관으로 소개했다. 이렇듯 기이한 경치로 만고에 이름난 곳인 경양대 아래에서 간송 또한 1605



자료8. 남지에서 본 경양대. 현재 칠서취수장으로 접근 불가.

39) 간송은 넉 달 뒤 함께 한 선유 때 한몽삼과 박도원이 각각 가져온 서문과 기문을 읽고 「奈內船遊序記後跋」(『간송집』 권4)을 지었다.

40) 조임도, 「尋賢錄」, 『간송 별집』 권1. 관련 시가 「蔚津舟中示同行二友初夏船遊」(『간송집』 권2)이다.

년 뱃놀이한 적이 있다.<sup>41)</sup> 현재 경양대는 칠서취수장 뒤의 가파른 절벽인데 진동양수장과 연결되어 있다. 안전과 보안을 위해 현재 출입을 금하고, 남지 쪽에서 멀리 볼 수 있을 뿐이다.

1628년 4월 이도보(李道輔, 자 益之)와 이징(李澂, 자 而淸)<sup>42)</sup>, 유형길(俞亨吉, 1589~1651, 자 會甫), 양훤(楊暉, 자 以貞)과 양경(楊暉, 자 用晦), 이여장(李汝章, 자 斐然)<sup>43)</sup>, 이완(李浣, 자 而白)과 이호(李濤, 자 而濟)<sup>44)</sup>가 배에 휘장을 설치하여 강 위에서 선유를 즐겼다. 간송은 양씨 형제를 제외하고 모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간송은 이들과 함께 시를 읊조렸고,<sup>45)</sup> 유람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9명 이름을 아울러 기록한 「경양대하선유기(景釀臺下船遊記)」(『간송집』 권4)를 지었다. 양훤(1597~1650) 또한 여러 편의 「경양대동범(景釀臺同泛)」(『청주세고』 권3·4) 시와 「경양대동범록(景釀臺同泛錄)」(『청주세고』 권6) 유기를 지었다. 그리고 이도보(1587~1651)는 5언절구 「범주낙강(泛舟洛江)」을 지었다.<sup>46)</sup>

또 1629년 3월 18일에는 간송의 장인 이흠(李屹)의 제자 임곡 임진부(林眞愆)가 노천 이준(李浚)과 함께 상봉정을 찾아왔다. 다음 날 배에

- 
- 41) 조임도, 「泛舟景釀臺下」, 『간송집』 권2 ; 「追次李子粹 道純 遊景釀臺下韻」, 『간송집』 권1.
- 42) 익암 이도보는 외제 이후경(1558~1630)의 장남이다. 그의 아들 8남 중 이징은 없고, 장남 이수(李洙, 1608~1659)의 자는 이로(而魯)이다.
- 43) 이여장은 이응원의 4남으로 사위가 양훤의 아들 양도남이고, 제매가 함평이씨 밀양 입향조 이선지(李先智)이다. 그리고 양훤의 제매 이숙(1606~1665)은 이도자의 동생 창량수 이도유(1566~1649)의 장남인데 자가 이실(而實), 호는 한천(寒泉)이다.
- 44) 이완과 이호는 형제 사이라 했는데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아래의 각주에 있듯이 동범 시가 분명하게 전하는 이도자, 이숙의 오기인지는 모르겠다.
- 45) 조임도, 「初夏船遊」, 『간송집』 권2 ; 「戊辰首夏復齋李丈道孜佩酒訪余于柰內」, 『간송집』 권4.
- 46) 이도보의 『익암유고』는 부친의 『외재집』에 합편되어 있다. 맨 앞에 수록한 「泛舟遊洛江」 시의 세주에서 중형 이도자, 조임도, 종질 이숙과 함께 뱃놀이하며 시를 주고받았다고 기입했다. 한편 이석경의 장남 이도자(1559~1642)의 『복재집』 권상 <1a-2a>에 「泛舟洛江」 시와 조임도·이도보·이숙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짐을 꾸려 물길을 따라 상포의 경양대를 거쳐 송진(松津)을 지나 창암의 망우정을 구경했다. 정자 북쪽의 높은 단에 올라 휴식하면서 시를 읊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영산 도천마을에 살던 배홍지와 배홍례, 곽재우의 외손 신동망과 신시망 형제, 신여달, 신동망의 자형 여과언(呂果彦)이 찾아와 합류했다. 이 중 신동망의 장인 이회일(1582~1618)은 조임도의 처남이고, 신시망의 장인은 국담 박수춘(朴壽春)이다. 유쾌한 뱃놀이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이들은 나루터 촌가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 헤어졌고, 당시 임진부(1586~1657)는 경양대의 푸른 절벽과 그 위로 솟아나는 붉은 일출의 장관을 대비시켜 경관미를 시로 표출했다.<sup>47)</sup>

## (2) 영산현 용산 이사와 합강정

간송은 1633년 봄 다시 내내에서 뱃길로 5리쯤 떨어진 기강(岐江)의 동북쪽 영산현 남지 용산(龍山) 마을로 옮겨 살았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27년, 모친이 별세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내내로의 이사가 그랬듯이 16년 만의 용산 이거



자료9. 아호 선영에서 우측으로 멀리 보이는 곳이 남지읍 용산마을이고, 중앙 앞쪽은 기강나루이다.

는 부모의 묘가 있는 아호(鵝湖) 선영(자료9)과 아주 가까워 배를 타고 가면 금방 닿는 곳이었다. 6세 때 부친이 ‘백효(伯孝)’라고 이름 지어줄 정도로 효심이 특출했던 그가 용산 초가에서 아버이를 그리워하며 여생을 마칠 생각이었다.<sup>48)</sup>

간송의 지극한 효성은 용산과 마주한 용화산 서쪽 기슭의 낙동강 변에 세 칸짜리 작은 정자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가운데 칸은 망모암(望慕

47) 조임도, 「過從錄」, 『간송 별집』 권1 ; 임진부, 「연보」, 『임곡집』.

48) 관련 시가 「龍山新卜」(『간송집』 권2), 「江村暮興」(『간송집』 권2)이다.

庵), 왼쪽은 사월루(沙月樓), 오른쪽은 와운헌(臥雲軒)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정사 앞의 높은 대를 연어대(鳶魚臺), 그 인근의 바위를 노어암(鱸魚巖)이라



자료10. 용화산 서쪽 자락의 합강정. 구암로 469.

하고 모두 합쳐서 합강정사(合江精舍, 자료10)라 이름하였다.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이곳의 집터는 지리산에서 산천을 유람하다가 온 승려 영탄(靈誕)이 터를 잡고 건물 공사도 주관했다.<sup>49)</sup> 간송은 건물 완공 후 깊숙한 절벽과 어우러진 서재의 좋은 경치를 취해 12수 제영시로 읊었다.<sup>50)</sup> 용산에서 합강정을 오가며 자연에서 지극한 이치를 발견하고 여유 자적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은일 군자를 지향하는 내용이다. 사우들과 강학과 풍류를 즐기고, 극진한 효심을 실천하는 장소가 합강정 공간이었다.

간송은 정사를 지은 1633년 가을에 신산서원(新山書院)의 원장이 되었는데, 1635년 3월 초순 내내의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서원 춘계 향사(享祀)에 참석하고 다시 용산으로 돌아올 때 중간 기착지가 합강정 연어대였다.<sup>51)</sup>

이후 합강정은 낙동강 하류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인식되었다. 17세기 초반에 거행된 선유는 ‘용화고사(龍華古事)’로 자주 시문에 등장했다. 예컨대 합강정 중수 상량문을 지은 강좌 권만(1688~1748)은

49) 조임도, 「江舍新册 示僧靈誕」, 『간송집』 권2 ; 「江舍新册述懷 示山人靈誕」, 『간송집』 권1.

50) 조임도, 「江齋十二詠」, 『간송집』 권1. 12제는 망모암(望慕庵), 연어대(鳶魚臺), 석천와(石泉窩), 사월루(沙月樓), 와운헌(臥雲軒), 농월담(弄月潭), 석병(石屏), 노암(鱸巖), 송금(松琴), 상범(商帆), 운홍(雲鴻), 파구(波鷗)로 현재 내부 벽에 걸려 있다.

51) 조임도, 「遊觀錄」, 『간송 별집』 권1.

용화 범주 고사를 떠올리며 지은 시에서 정구, 곽재우, 장현광의 세 사람이 끼친 학문과 덕망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남쪽 고을에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칭송했다.<sup>52)</sup> 그리고 성재 허전(1797~1886)은 김해부사로 지내던 1866년 5월에 함안 서산서원 알묘를 주관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흥진에 이르러 배를 띄우고 합강정 위를 거슬러 올라가며 용화동범의 풍류를 회고했다. 당시 동참한 문생 70여 명은 성재의 구호에 따라 다양한 문체로 각자의 서정을 표출했다.<sup>53)</sup> 또 한주 이진상(1818~1886)은 1877년 축석루를 유람하고 오는 길에 합강정에 들러 용화 뱃놀이 고사를 생각하고는 시를 지었다. 신령한 경치가 모인 용화산에서 한려(寒旅) 두 선생이 주희와 장재의 글을 읽고 이응(李膺)과 곽태(郭泰)처럼 속세를 벗어나 배를 타고 소요했다고 한 뒤 그곳에서 학자들이 기상을 함양하던 모습을 공자에게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돌아오겠다고 한 제자 증점(曾點)의 욕기(浴沂)와 짝하는 것이라 했다.<sup>54)</sup>

이뿐만 아니라 합강정은 월주(月柱)로 더욱 유명했다. 과제 장석신(1841~1923)은 1903년 7월 기망의 밤에 합강정에 올랐다. 정자 위로 달이 두둥실 높이 떠서 강 아래 5리쯤까지 비치는 달빛기둥을 은대(銀臺) 옥탑(玉塔)에 비유하고 천하의 기관이라 하면서 시를 지었다. 19세이던 백산 안희제(1885~1943)도 문중의 어른들과 함께 시를 지어 대자연의 벽찬 감동을 노래한 바 있다.<sup>55)</sup> 당시 백산 집안의 인사와 용화산에서 합류한 조임도 주손인 조병규 등 18명이 반구정과 합강정 사이에서 뱃

52) 권만, 「記龍華泛舟古事」, 『강좌집』 권2, “三老同舟閱幾秋 德星餘耀在南州 此來悵望涪江棹 不斷源波滾滾流”.

53) 이상두(1838~1882)의 「龍華同泛賦」(『쌍봉집』 권1)과 조성립(1836~1886)의 「合江亭同泛錄序」(『심재집』 권3) 참조.

54) 이진상, 「追感鄭寒岡張旅軒兩先生泛舟故事」, 『한주집』 권2, “靈境須於合處求 龍華山北水交頭 天湖昔誦朱張帖 霄漢遙瞻李郭舟 工夫自有衡星定 氣像難模水月幽 活潑都從平實做 雲壇願備冠童儔”.

55) 하강진의 「백산 안희제의 가학 전통과 유람시」 참조.

높이하며 기망(既望)의 풍류를 즐겼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합강정 문화경관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강조할 점은 합강정이 1633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용화동범에서 함안 쪽의 첫 번째 나루인 도홍촌을 선유 노선의 시작으로 잡은 것이다. 조임도가 검암에서 내내로, 내내에서 용산으로의 낙동강 연안 이거는 선유의 빈도를 높였고, 그에 따라 장소 특성이 구체적으로 시문에 저장될 수 있었다. 또 합강정은 선유의 상징적인 학술 문화공간으로 두루 인식되었다. 게다가 간송이 1639년 찬술하고 1813년 송정서원에서 간행한 『금라전신록』의 책판을 보관했고, 1930년 5월 『간송집』 속집을 목활자로 인쇄한 곳도 합강정이라는 사실은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서 무게감을 한층 더했다.

### 3) 용화동범과 용화산수도의 거리

1607년 용화동범의 풍류와 추억은 시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학술 토론을 위한 집회 성격도 아니었기에 학술 담론도 부재했다. 임란이 채수습이 되기도 전에 마련된 스승과 문생의 대규모 회합은 지역과 학문 경계를 넘어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다. 바로 문화적 기억의 새로운 저장 방식인 자칭 용화산수도(龍華山水圖)의 창안이었다. 소상팔경도처럼 관습적인 동양화의 8폭 형식을 취함으로써 선유 공간이 친숙한 장소로 탄생하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758년 박상절이 편찬한 『기락편방』은 낙동강 하류 함안권 주유의 지침서가 되었다. 위에서 말한 장석신 외에도 의암 안덕문(1747~1811), 서강 안익제(1850~1909), 일헌 조병택(1855~1914), 소눌 노상직(1855~1931) 등이 책 속의 인물 행적과 선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런데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박상절의 산수도를 수용할 때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제1도 <용화승집(龍華勝集)>(자료11)의 세부 요소이다. 산 중턱

에 ‘合江亭’이 세로로, 강 중심부에 ‘鵝湖’가 가로로 기입되어 있다. 아호는 용화산의 제일 서쪽에 있는 곳으로 남강의 끝자락이자 낙동강과의 합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 뒷산에 1607년과 1621년에 각각 별세한 조임도의 부모 묘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장소성이 없었다. 나중에 간송 또한 아호 선영 아래에 묻힌 까닭에 그 이후 간송 문중에서 아호는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배를 댈 만한 나루도 없는 지리 여건상 용화동범 당시의 선유 코스는 도흥촌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합강정은 1633년 이후로 존재한 건물이다. 따라서 1607년의 선유 코스는 도흥촌→창암정→경양대(통과)→도흥촌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이로써 보건대 제1도에 그려진 ‘合江亭’은 1607년의 풍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단의 제화사에서 “홀륭한 사우회(師友會) 때 나의 선조가 함께 노닐었다[猗歟師友會 吾祖昔同遊]”라 함은 박상철이 발문을 쓴 1744년 당시 약 140년 전의 용화산 선유를 재구성한 것으로, 그때까지 실재하지 않은 합강정과 원래 코스에 없던 아호가 그림 속으로 들어와 있다.

둘째, 제4도 <내내청상(奈內淸賞)>(자료12)의 세부 요소이다. 배를 댄다고 하는 강변 위쪽의 산에 ‘翔鳳亭’이 세로로, 그리고 그 우측에 ‘奈



자료11. 「용화산수도」 제1도<용화승집>



자료12. 「용화산수도」 제4도<내내청상>

內'가 기입되어 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은 누대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능가사 우측의 절벽에 해당한다. 이미 거론한 것처럼 상봉정은 1618년 검암에서 내대촌으로 이사한 직후에 건립한 건물이다. 1607년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위의 함강정과 마찬가지로 상상으로 배치한 구도이다.

셋째, 제2도 <청송모성(靑松暮聲)>의 '靑松寺'와 제6도 <우포추범(藕浦追帆)>의 '伴鷗亭' 관계이다. 우선 바위 언덕에 그려진 정자에 '伴鷗亭'이 세로로 기입되어 있고, 그 우측에 '上浦津'을 적어놓았다. 상포는 이첨(1345~1405)의 「도우질포(渡弓叱浦)」(『동문선』 권22)에 나오듯이 고려말에도 존재한 매우 오래된 나루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칠원현>조에서 “현 북쪽 30리 지점에 있다. 곧 영산현 기음강(岐音江) 하류이다.”라 했다. 상포 혹은 우질포는 한글로 표현하면 ‘웃개’이다. 현재 칠서면 계내리 진동양수장 앞 진동제 강가로 옛날 남지 웃개시장이나 남지중고, ‘우갱이’라 부르는 우강리 창암정(망우정) 등으로 통행하는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던 곳이다. 그 동쪽의 남지대교 바로 앞의 말바위에 1981년 세운 두암(斗巖) 조방(趙邦)의 별장 ‘반구정유허비’(자료 13)가 있다. 맞은편 멀리 영산 도천에는 창암정이 있다. 반구정이 조선 말 대홍수로 터만 남게 된 것을 기념한 것이다. 1858년 옛 청송사 자리에 지금의 반구정을 중건했고, 1866년 4월 허전이 『반구정기』를 지었다.

이런 내력을 모르고서는 제 2도와 제 6도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터이다.

이처럼 박상절이 재현한



자료13. 남지대교 앞의 '반구정유허비'

시각적 이미지의 합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간의 변천에 따른 장소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 4. 나오며

17세기 초 한강 정구(鄭逋)가 주도한 함안 용화산 선유 기록은 낙동강 연안 문화와 선유 문화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다. 용화산하동범(龍華山下同泛)의 풍류는 조선후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영남의 대표적인 시회(詩會) 교유의 하나로 존속했다.<sup>56)</sup> 지역문화콘텐츠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관련 인물과 시의 정보를 보완하고 선유 공간의 장소성을 밝혀보고자 했다.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화산 아래 낙동강 동범은 짧은 일정상 한강의 문인들이 학술 토론을 펼치는 모임은 될 수 없었다. 당시 선유(船遊)는 비석 찾기를 명분으로 사우들 간에 안부를 묻고 동료 연대감을 공고히 하는 차원의 사제 동행이었다.

둘째, 조임도(趙任道)가 용화산하동범록에서 35명을 기재하고 그중 2인의 정보는 모른다고 했다. 박상절이 1742년 입수한 이충민(李忠民)의 인적 사항을 1758년 『기락편방』에 보충하면서도 최문주(崔門柱)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두었다. 관련 문헌을 새롭게 고찰한 결과 그는 1589년 함천에서 태어나 영산으로 이사해 살다가 1654년에 졸했고, 선유 당시 흥미롭게도 35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9세로 한강의 촉망받는 제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용화산하동범의 감동과 의미를 전해주는 작품 두 편을 문집에

56) 1964년 9월에 발간된 『낙강동범계안(洛江同泛契案)』(발행인 홍종섭)을 보면 1955년부터 범 한안 유지들이 참여한 시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서 찾았다. 옥천 노극홍(盧克弘)의 시는 사우들과 함께한 선유 당일의 감격을 표현했고, 광서 박진영(朴震英)의 시는 혼탁한 세상에서 지조를 지켜나가고자 한 지사적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이다.

넷째, 한강의 봉산욕행(蓬山浴行)에는 용화산 주유 때 동참한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뱃길 위주의 하행 길에서 일시 머문 함안의 주요 장소가 일정 관계상 풍부하게 묘사되지는 못했으나 낙동강 선유 문화의 풍류와 임란 체험의 문화적 기억을 축적했다. 그리고 퇴계(退溪) 선유시의 미적 감성을 계승하는 흥락(興樂) 정서가 주조를 이룬 기존의 시 외에 관련 시 한 편을 더 찾아 선유 관련 작품 총량을 늘렸다.

다섯째, 조임도는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극진한 효심을 실천하기 위해 함안 검암(儉巖)에서 칠원(漆原)의 내내(奈內)로, 또 내내에서 영산현(靈山縣)의 용산(龍山)으로 이사했다. 이로써 함안권 선유 공간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들어앉게 되었고, 기망(既望)의 월주(月柱)가 장관인 합강정의 공간 심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용화산 선유를 배경으로 한 시가 많이 창작되었고 관련 산문 기록도 풍부해졌다.

여섯째, 박진영의 증손 박상절(朴尙節)이 『기락편방(沂洛編芳)』을 편찬하면서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과 용화산수도(龍華山水圖) 구성을 신설함으로써 용화동범의 기억이 대거 보강되고 선유 의미가 생생하게 되 살아났다. 다만 장소성의 변화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판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고를 통해 밝힌 사실들이 용화산하동범록을 깊이 이해하고 낙동강 선유 문화콘텐츠의 의의를 재인식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박진영, 『광서집』, 경상대 문천각 소장.  
안 정, 『도곡집』, 국립중앙도서관.  
양 환, 『어촌유고』(『청주세고』 권3~6), 국립중앙도서관.  
이도자, 『복재집』, 국립중앙도서관.  
이 서, 『동호집』, 한국문집총간 속13집.  
이시함, 『농운실기』, 하강진 소장.  
이후경, 『외재집』(부 『익암유고』), 국립중앙도서관.  
조 방, 『두암집』, 경상대 문천각.  
조임도, 『간송집』, 한국문집총간 89집.  
「용화산하동범록」, 최성렬 소장(박권곤 제공).  
홍중섭, 『낙강동범계안(洛江同泛契案)』, 1964.9. 하강진 소장  
권재한 등 편, 『연방집록』, 국립중앙도서관.

### 2. 단행본

- 박상철 편/백운용 역, 『기락편방』, 지만지한국문학, 2024.  
이윤우 저/이세동 역, 『봉산욕행록-한강선생 동래온천에 가다』, 성주문  
화원, 2016.  
조임도 저/이명성·장성진 역, 『국역 금라전신록』, 함안문화원, 2010.  
경덕서당화수회, 『외재선생문집』(국역), 석암출판사, 1998.  
김현주, 『함안에 담긴 역사와 인물』, 피플파워, 2022.  
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강안학 연구총서1), 역락, 2024.  
장윤수 외, 『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과』(강안학 연구총서2), 역락, 2025.

### 3. 논문

- 김소연,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4집, 한국문학회, 2020, 107~140쪽.
- 김원준, 「退溪 船遊詩를 통해 본 ‘樂’과 ‘興」」, 『퇴계학논집』 9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73~102쪽.
- 김중구, 「16~17세기 선비들의 낙동강문화(洛東江文化)와 그 의미-정구, 장현광, 정경세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2, 31~68쪽.
- 김종진, 「『용화산하동범록』의 역사적 의의」, 모현계, 2024.7.
-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6, 105~168쪽.
- \_\_\_\_\_, 「정구(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호, 영남문화연구원, 2010.6, 75~111쪽.
- \_\_\_\_\_,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12, 41~98쪽.
- 손대현, 「『기락편방』 소재 龍華同泛 관련 작품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54집, 한국어문학회, 2021, 95~122쪽.
- 유주연, 「조선 후기 선유문화의 시각화-낙동강 유역 선유도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21호, 2025, 285~314쪽.
- 이상균, 「조선시대 船遊文化의 양상과 그 폐단」, 『국학연구』 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215~264쪽.
- 이연주, 「영남 문인들의 결속과 낙동강 선유의 근대적 재현: 행소박물관 소장 《용화산하동범지도 병풍》 연구」, 『한국민화』 21호, 한국민화학회, 2024, 213~242쪽.
- 이태희, 「『蓬山溫泉浴行日記』에 나타난 盧相稷의 동래온천 여행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62집, 동양한학회, 2022, 269~321쪽.

- 장인진,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남명학』 84호, 영남문화연구원, 2023, 239~289쪽.
-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8쪽.
- \_\_\_\_\_,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 \_\_\_\_\_,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蓬山浴行錄-한강선생 동래온천에 가다』, 성주문화원, 2016, 131~167쪽.
- 최윤정,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 연구-교유시(交遊詩)와 선유(船遊)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5~42쪽.
- 하강진, 「백산 안희제의 ‘황계폭포’ 시 발굴과 그 의의」, 『근대서지』 14, 근대서지학회, 2016, 148~163쪽.
- \_\_\_\_\_, 「백산 안희제의 가학 전통과 유람시-장석신의 『남유록』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2, 부산경남사학회, 2017, 231~272쪽.
- 한영미, 「『蓬山浴行錄』 研究」, 경북대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 2012. 함안문화원, 『龍華山下同泛 諸賢 行적 재조명 학술대회』(2024.12.13, 자료집), 2025.1, 6~139쪽.
- 허권수,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남명학연구』 1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353~387쪽.
-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학보』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1281~1309쪽.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

<Abstract>

The Figures and Sense of Place of the Boat Trip to  
Below Yonghwasan Mountain, Haman

Ha, Kang-Jin\*

The records of the boat excursion to below Yonghwasan Mountain(龍華山) in Haman(咸安), led by Hangang(寒岡) Jeong Gu(鄭述) in the early 17th century, are important documents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kdong River(洛東江) coastal culture and boat excursion cultur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regional cultural content,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findings regarding supplementing information on related figures and poems, as well as examin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boat excursion location:

First, due to the short duration of the trip, the excursion along the Nakdong River below Yonghwasan Mountain could not have served as a gathering for scholarly discussions among the literati of Hangang. At the time, the boat excursion was a teacher-student journey intended to exchange greetings and solidify camaraderie among friends, under the pretext of searching for gravestones.

Second, Jo Im-do(趙任道) listed 35 individuals in the Yonghwasan-hadongbeomnok(龍華山下同泛錄) but stated that he did not know the information of two of them. While Park Sang-jeol supplemented the personal details of Yi Chung-min(李忠民), which he obtained in 1742, in the 『Girakpyeonbang(沂洛編芳)』 in 1758, he still left the information

---

\* Dongseo University.

regarding Choi Mun-ju blank(崔門柱). A new examination of relevant literature revealed that he was born in Hapcheon(陝川) in 1589, moved to Yeongsan(靈山) to live, and passed away in 1654. Interestingly, at the time of the boat excursion, he was the youngest of the 35 participants at the age of 19 and was a promising disciple of Hangang.

Third, two works were found in the collected works that convey the emotion and significance of the Yonghwasanha Dongbeom. The poem by No Geuk-hong(盧克弘) expresses the deep emotion of the day of the boat excursion shared with fellow scholars, while the poem by Park Jin-yeong(朴震英) is a valuable work that portrays the image of a patriotic scholar striving to maintain his integrity in a turbulent world.

Fourth, the literary figures who participated in the tour of Yonghwasan formed the core of Hangang Jeong Gu's Bongsan Yokhaeng(蓬山浴行). Although the major sites in Haman, where they temporarily stayed during the boat-based descent, could not be described in detail due to time constraints, the work accumulated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refined culture of the Nakdong River boat excursion and the experiences of the Imjin War(壬辰倭亂). Furthermore, in addition to existing poems characterized by the sentiment of “enjoyment and pleasure” that inherits the aesthetic sensibility of Toegye(退溪)'s Boat trip(船遊) poems, one additional related poem was discovered to increase the total volume of works related to Boat trip.

Fifth, Jo Im-do moved from Geomam(儉巖) in Haman to Naenae(柰內) in Chilwon(漆原), and then from Naenae to Yongsan(龍山) in Yeongsan-hyeon(靈山縣), in order to enjoy spiritual freedom and practice profound filial piety. As a result, the Boat trip space of the Haman region became concretely embedded in the work, and the spatial

imagery of Hapgangjeong(合江亭), where the moon pillar at full moon is a magnificent sight, was further strengthened.

Sixth, Park Sang-jeol(朴尙節), the great-grandson of Park Jin-yeong, compiled Girakpyeonbang and newly established the specific deeds of the figur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Yonghwasansudo(龍華山水圖) thereby significantly reinforcing the memory of Yonghwadongbeom and vividly reviving the meaning of Boat trip.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aution must be exercised when interpreting the plates, as there are discrepancies due to changes in spatiality.

Key Words: Haman(咸安), Yonghwasanhadongbeomlog(龍華山下同泛錄), Boat trip(船遊), Hapgangjeong(合江亭), Jo-imdo(趙任道), 『Girakpyeonbang(沂洛編芳)』, 『Yonghwasansudo(龍華山水圖)』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3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1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1일